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73차 세미나를 『열린 사회: 이상인가, 현실인가?』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열린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린 사회는 자유, 관용, 비판적 이성의 제도적·규범적 구현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동시에 배제와 통제, 갈등의 구조를 내포하는 역사적·현실적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이중성을 존재론적·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열린 사회 개념의 이론적 정합성과 실천적 가능 조건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열린 사회의 존재론 모색’에서는 그 개념적 토대와 존재 양식을 분석하며, ‘인류세 인공지능시대 열린 사회론’에서는 기술적 합리성과 권력 재편이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합니다. ‘마녀와 열린 사회에 대한 질문’에서는 타자화와 배제의 계보학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근대국가 유형론과 열린 사회의 국가관’에서는 국가 형식과 자유의 관계를 유형론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두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참여만 가능하실 경우 이메일로 회신해주시면 접속 방법 안내 메일을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 khsd2701@khu.ac.kr)

■ 주제: 『열린 사회: 이상인가, 현실인가?』

- 일시: 5월 27일(수) 13:30-18:00
-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619호
- 주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한국문명연구회

■ 열린 사회의 존재론 모색

발표: 강학순(안양대학교)
토론: 신중섭(강원대학교)

■ 인류세 인공지능시대 열린 사회론

발표: 김기봉(경기대학교)
토론: 김기덕(건국대학교)

■ 마녀와 열린사회에 대한 질문

발표: 이택광(경희대학교)
토론: 최정우(ISMAC Paris)

■ 근대국가 유형론과 열린 사회의 국가관

발표: 정용덕(서울대학교)
토론: 김근세(성균관대학교)

■ 종합토론

2026년 4월
한국문명연구회